별 첨

축 사

-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 -

2026. 11. 11.(수) 14:00

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

금 융 위 원 장

이 억 원

Ⅰ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?

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.

먼저 뜻깊은 마련해주신

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님과 **관계자** 여러분,

그리고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

묵묵히 땀 흘리고 계시는

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함께해 주신 **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**님,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을 비롯한

관계기관과 **금융권, 노동유관단체** 관계자 여러분께도

감사드립니다.

Ⅱ 포용금융의 역할과 책임

금융은 **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** 합니다.

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

금융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됩니다.

포용금융은 단순히 어려운 분들을 돕는
시혜적 지원이 아닙니다.
더 많은 국민에게 **금융의 문**을 열어주고
각자가 가진 **가능성**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,
그것이 포용금융의 **본질**입니다.

금융은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**버팀목**이자
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**디딤돌**이어야 합니다.
이를 위해서는
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
금융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필요합니다.

III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정교한 금융으로의 전환

그동안 우리 금융시스템은
안정적인 고용과 **정기적**인 소득, 과거의 **금융거래 기록**을
중요한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.
그러나 국민 모두가 **같은 방식**으로 일하고
같은 형태로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.

건설노동자는
현장과 공사 일정에 따라 일하는 곳이 바뀌고
계절과 날씨에 따라 소득도 달라집니다.
플랫폼노동자와 **프리랜서** 역시
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.
기회가 닿는대로 성실하게 일해도
소득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현실에서는
성실하게 일하고 **충분한 역량**을 갖춘 경우에도
이를 **입증할 자료**가 부족하다는 이유로
금융의 문턱에서 **좌절**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
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.
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해서
상환능력까지 **낮게 평가**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사람을 **금융의 잣대**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
금융의 잣대를 사람들의 **다양한 현실**에 맞추어야 합니다.

과거의 금융거래 기록뿐 아니라
현재의 근로이력과 경제활동,
나아가 미래의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.

금융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
성실함과 **가능성**까지 찾아내는 것,
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할
더욱 **세심하고 정교한 포용금융**입니다.

Ⅳ 오늘 협약의 의미와 추진 방향

그런 의미에서
오늘의 업무협약은 매우 뜻깊습니다.

금융당국과 **노동당국**, **금융권**과 **관계기관**,
그리고 **노동유관단체**가 힘을 모아
금융의 **사각지대**를 줄이고
새로운 **기회의 문**을 열기 위한
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.

우선,

건설근로자공제회와

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

고용·산재보험, 퇴직공제금 납부내역,

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

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.

이를 토대로

건설노동자와 **노무제공자**의 특성을 반영한

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

내년중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아울러,

일시적인 **소득 감소**나 예기치 못한 **어려움**이

금융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

채무조정과 **금융상담**을 강화하고

금융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.

은행권에도 **당부**드립니다.

포용금융을 **수동적인 과제**가 아니라

금융회사가 **스스로** 해야할 **중요한 역할**로 인식하고

보다 **적극적**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.

노동유관단체에서도

현장의 **금융 수요**와 **애로사항**을

적극적으로 **전달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오늘의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

현장에서 **체감**할 수 있는

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.

Ⅴ 마무리 말씀

포용금융은

더 많은 사람을 금융 안으로 **포섭**하는 동시에

각자의 **서로 다른 사정**을

더욱 **세심하고 정교하게 살피는** 방향으로

발전해야합니다.

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, 프리랜서 뿐 아니라
청년, 고령층, 자영업자 등
다양한 여건에 놓인 **국민 모두**가
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**정당**하게 **평가**받고
금융의 **기회**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.
금융의 문턱을 낮추는데서 그치지 않고
금융이 더 많은 국민의 **가능성**을 키우는
힘이 되어야 합니다.

오늘의 어려움을 **극복**하고
내일의 희망을 **준비**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
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
포용금융의 모습입니다.

오늘의 협약이
그 변화를 현장에서 **실현**하는
뜻깊은 **출발점**이 되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